『中國學』第85輯 (2023.12.31.)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23.85.85.11
pp.221-240. ISSN : 1229-9618

장어(長魚) 이름의 어휘사
- 한자어 이름을 중심으로

곽현숙*

【목 차】

1. 들어가기
2. '장어(長魚)'의 의미 및 어원
3. '장어(長魚)'가 상위어로 된 원인
4. '장어(長魚)'의 다양한 이름이 지닌 문화적 함의
5. 나오기

【초록】

본 연구는 어류(魚類)의 한 종류인 장어(長魚)의 명칭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통시적 고찰을 통해 장어(長魚)가 한자어 '만리(鰻鱺)'로부터 지금의 '장어(長魚)'에 이르기까지의 의미 변화를 검토하고, '만리(鰻鱺)'가 아닌 '장어(長魚)'로 명명된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표준어에서 말하는 '장어(長魚)'가 무엇이고 어떻게 장어(長魚)의 종류를 통칭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장어(長魚)의 다양한 이름을 통해 한·중·일 언어문화교류 현상과 그 이름에 담긴 문화적 함의를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장어의 한자어 '長魚'는 글자 그대로 '몸이 긴 물고기'를 통칭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장어류의 통칭이 아니라 오직 장어(長魚)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해만리(海鰻鱺)'의 속명(俗名)이었다. 15~19세기 장어(長魚) 이름과 관련된 문헌의 내용을 종합해보니 이 단어는 조선 후기까지 '만리어(鰻鱺魚)'로 불렀고, 이후 뱀장어목에 속하는 모든 종(種) 또는 그 형상이 긴 물고기를 통틀어 '장어(長

* 곽현숙, 부경대학교 중국학과 학술연구교수 (yellow1331@hanmail.net)

魚)'라고 지칭하게 되었다. 그리고 표준어에서 장어(長魚)가 상위어로 된 계기는 물고기 형상의 유사성, 장어(長魚)의 다양한 이명(異名), 장어(長魚) 이름에 사용된 한자의 '다의어, 동음어, 이체자' 현상 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장어(長魚)의 다양한 이명(異名)과 한자어로 이루어진 장어(長魚)의 이름을 통해 장어(長魚)의 생태적 습성과 특징은 물론 장어(長魚) 이름에 담긴 한·중·일 언어적 해석 방식과 문자 표기상의 차이, 장어가 지닌 상징성과 문화적 함의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

【키워드】 장어(長魚), 기원(基源), 명칭(名稱), 이명(異名), 해만리(海鰻鱺), 만리어(鰻鱺魚)

1. 들어가기

일반적으로 생물의 이름은 전세계에서 공통으로 쓰는 학명(學名)과 각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일반명, 그리고 특정 지방에서만 사용하는 방언이 있다. 이 중 학명은 학명 뒤에 처음 이름을 지은 사람을 명기하여 그 유래를 찾기 쉽지만 일반명은 보통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일이 많아 그 이름의 기원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많다. 특히 척추동물 중 가장 많은 종이 있는 물고기는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나라와 지방에 따라 그 이름이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고기 이름은 어떻게 붙여지게 되었을까?

물고기 이름은 보통 특이한 생김새나 생태 등의 특징에서 비롯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떤 종은 특별한 사연이 있어 이에 따라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물고기 이름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

본고에서는 어류(魚類)의 하나인 장어의 이름에 주목하여 고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장어(長魚)를 어떻게 명명하고 있고, 그 이름의 어원과 유래는 어디에서 왔으며, '장어(長魚)'가 뱀장어목에 속하는 모든 종류의 총칭이자 상위어로 된 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장어(長魚) 이름에 담긴 상징성과 문화적 함의 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장어(長魚) 이름에 대한 연구는 물고기 명칭에 대한 명명의 일반 원리를 밝히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장어(長魚)의 다양한 이명(異名)을 통해 동일한 사물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 다른 문화, 다른 통념을 이해할 수 있고, 한자에

드러난 문화적 관습, 문화의 전파 및 교류 등을 살펴볼 수 있으며 한자를 매개로 한 지역과 국가 언어접촉 교류 양상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장어(長魚)'의 의미 및 어원

장어(長魚)는 경골어류(硬骨魚類) 뱀장어목에 속하는 모든 종류의 총칭으로 한자는 '長魚'로 표기한다. '長魚'는 한자 풀이 그대로 몸이 '긴 물고기'를 말하는데 분류학적으로는 경골어류 뱀장어목에 속하는 모든 종류가 포함되고, 무악류(無顎類)인 먹장어도 길이가 길다 하여 장어(長魚)로 불린다.[1]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장어(長魚)의 의미를『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뱀장어과의 민물고기로 몸의 길이는 60cm 정도이고, 가늘며, 누런색 또는 검은색이고 배는 은백색이다. 배지느러미가 없고 잔 비늘이 피부에 묻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민물에서 살다가 바다에서 산란한다. 주로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설명하는 장어(長魚)는 '뱀장어'를 말한다. 뱀장어의 학명은 'Anguillia japonica TEMMINCK et SCHLEGEL'인데 전 세계에 17종 2어종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는 뱀장어와 무태장어 2아종이 여기에 속한다. 무태장어는 열대성의 남방계 어종에 속하는 장어의 일종으로 뱀장어과에 속하긴 하지만 엄연히 말하자면 뱀장어와는 다른 물고기다. 그리고 뱀장어는 흔히 '민물장어'라 부르는 종으로 장어류 가운데 유일하게 바다와 강을 오가는 장어이다. 그래서『표준국어대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장어(長魚)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뱀장어'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뱀장어는 언제부터 '장어(長魚)'라고 불렸으며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정약전(丁若銓)의『자산어보(玆山魚譜)』기록을 살펴보면 뱀장어를 지칭하는 '해만리(海鰻鱺)'[2]라는 명칭이 보이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만리(海鰻鱺) [속명 장어(長魚)] 뱀장어: 큰 놈은 길이가 10척 남짓이다. 형상은 이무기(蟒蛇)와 유사하지만 이보다 크면서 짧다. 색은 옅은 흑색이다. 일반적으로 물고

1)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2) 뱀장어를 뜻하는 한자 '鱺'는 '려(여)'와 '리(이)' 두 가지 음이 있다.『자산어보(玆山魚譜)』에서는 '려'로 표기했고,『전어지(佃漁志)』에서는 이를 '리'로 표기하였는데, 본고에서는 현재 상용음을 따라 '리'로 일괄 표기하였다.

기가 물에서 나오면 달릴 수 없지만 이 물고기만은 뱀처럼 달릴 수 있으니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움직임을 제어할 수 없다. 맛은 달고 진하며 사람을 보익해 준다. 오래된 설사가 있는 사람은 해만리(海鰻鱺)와 섞고 미음을 쑤어 복용하면 설사가 멎는다."[3] (海鰻鱺 [俗名長魚] 大者長丈餘, 狀類蟒蛇, 大而短, 色淺黑. 凡魚出水則不能走, 此魚獨能走如蛇, 非斬頭, 不可制. 味甘醲, 益人. 久泄者, 和鰻鱺, 作糜粥服之則止.)

『자산어보(玆山魚譜)』에서는 뱀장어에 대해 표제어는 '해만리(海鰻鱺)', 속명(俗名)은 '장어(長魚)'로 기록하고 이의 효능을 설명하고 있다.[4] 여기서 '해만리(海鰻鱺)'는 '바다'의 의미를 지닌 '해(海)'자와 장어를 지칭하는 '만리(鰻鱺)'가 결합된 한자어로 우리말로 직역하면 '바닷장어'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민물장어라고 말하는 뱀장어를 '해만리(海鰻鱺)'라고 부를 수 있을까?

서유구(徐有榘)의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에서 이 '해만리(海鰻鱺)'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해만리(海鰻鱺) [빈암장어]: 일명 '자만리(慈鰻鱺)'라고도 하고, 일명 '구어(狗魚)'라고도 한다. 모양이 민물 뱀장어와 같지만 크다. 등마루에는 짧은 지느러미가 꼬리까지 이어져 있고 이빨이 길고 짧은 것이 서로 맞물린다. 살은 기름이 적고 맛이 좋아 일본 사람들이 매우 귀하여 여긴다."(海鰻鱺 [빈암장어] 一名慈鰻鱺, 一名狗魚. 形如江湖鰻鱺而大. 脊有短鬣亘尾, 牙齒長短相銜. 其肉脂少味美, 日本人甚珍之..)

그리고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에서 '만리어(鰻鱺魚)'에 대해서도 다른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만리어(鰻鱺魚) [빈암장어]: 모양이 선(鱓)과 같지만 배가 흰 까닭에 일명 '백선(白鱓)'이라고 한다. 또 살모사와 비슷한 까닭에 '사어(蛇魚)'라고 하기도 한다. 등에 누런 줄이 있는 것을 '금사리(金絲鱺)'라고 한다. 조벽공(趙辟公)의 『잡록(雜錄)』에 이르기를 "만리어(鰻鱺魚)는 수놈은 있지만 암놈은 없다. 그림자를 가물치에게 비치게 하면 그 새끼가 가물치 지느러미에 붙어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만례(鰻鱧)'라고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 조사해 보니 만리어(鰻鱺魚)는 4~5월에 알을 낳는데 갓 깨인 새끼는 바늘처럼 가늘어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침만리(針鰻鱺)'라고 한다. 반드시 가물치에 그림자를 비추어 새끼를 낳게 하는 것은 아니다. 뱀장어는 겨울과 봄에는 굴속에 들어박혀 있다가 5월이 되어서야 나와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이때 잡은 것이 맛이 좋다.

---

3) 일화자(日華子)는 "'해만리(海鰻鱺)'는 일명 '자만리(慈鰻鱺)'고, '구어(狗魚)'다. 동해에서 살고 '만리(鰻鱺)'와 유사하지만 그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해만리(海鰻鱺)'이다.

4) 뱀장어는 예로부터 강장식품으로 인정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약용으로 사용되었다.

곳곳에 있는데 강 속의 큰 것은 기름기가 두어 자가 된다. 육질이 단단하고 기름기가 많아 불에 구우면 냄새가 좋으니 꼭 해충을 죽이고 중풍을 그치게 하는 약효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것만은 아니다."(鰻鱺魚 [비암장어] 狀如鱓, 而腹白, 故一名白鱓. 又似蝮蛇, 故亦稱蛇魚. 背有黃脉者曰, 金絲鱺. 趙辟公『雜錄』云, 鰻鱺有雄無雌, 以影漫于鱧魚, 則其子皆附于鱧鬐而生. 故謂之鰻鱧. 然以今驗之, 鰻自於四五月生子, 初生細如針芒, 日本人謂之, 針鰻鱺, 未必皆影鱧而産也. 鰻於冬春蟄穴中, 至五月始出遊, 此時取者味美. 在處有之, 江中大者, 長或二三尺. 肉緊而多脂膏, 燔炙香美, 不專以其殺蟲. 已風之功而貴之也.)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의 표제어 '해만리(海鰻鱺)'와 '만리어(鰻鱺魚)'를 함께 살펴보면 두 표제어에 대한 한글 표기는 모두 [비암장어]이다. 그러나 각각의 설명을 살펴보면, '해만리(海鰻鱺)'는 '바닷장어'를 지칭하고, '만리어(鰻鱺魚)'는 '민물장어'로 다른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자산어보(玆山魚譜)』에서도 바닷장어에 '해만리(海鰻鱺, 장어), 해대리(海大鱺, 붕장어), 견아리(犬牙鱺, 갯장어), 해세리(海細鱺, 대광어)'를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5] 즉, 바닷장어는 바다에 사는 장어류의 총칭이자 예전에는 '해만리(海鰻鱺)'를 지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장어(長魚)의 옛 이름을 살펴보면, '해만리(海鰻鱺)', '만리어(鰻鱺魚)' 등으로 장어(長魚)의 이름에 '만(鰻)' 또는 '리(鱺)'자의 한자가 들어있다. 이 '만(鰻)'과 '리(鱺)'자는 우리나라에서 모두 '뱀장어'를 지칭하는 한자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에서도 중국어로 '鰻魚[mányú]', 일본어로 'ウナギ[鰻]'라 하여 모두 '만(鰻)'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만(鰻)'과 '리(鱺)'자의 본의(本義)와 어원(語源)을 통해 이 두 글자가 본래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어떻게 '뱀장어'를 지칭하는 글자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만(鰻)'자에 대해 살펴보자. '만(鰻)'자는 '어(魚)'가 의미부고 '만(曼)'이 소리부인 형성자로 '뱀장어'를 뜻한다. '만(曼)'자는 자원(字源)이 불분명하지만 금문(金文:)에 의하면 윗부분은 '투구', 중간은 '눈', 아랫부분은 '손'으로 구성되어 '손으로 투구를 눈 위까지 끌어당겨 눌러쓴 모습'을 그린 것으로 추청된다. 이로부터 '손으로 쓸어 당기다, 덮다, 가리다, 늘어뜨리다' 등의 뜻이 나왔는데, 늘어져 긴 모습을 한 뱀장어의 모양을 보고서 그 뜻을 담아 뱀장어 '만(鰻)'자가 만들어진 것이다.[6] 이러한 '만(鰻)'자는 옛날부터 장어(長魚)를 대표하는 한자어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만

5) '구어(狗魚)'라는 이름과 이빨 묘사로 볼 때 '해만리(海鰻鱺)'는 갯장어로 비정된다. 뱀장어목 갯장어과의 갯장어는 방언으로 '놋장어, 개장어, 갯붕장어, 해장어, 이장어, 참장어' 등으로 불리며 몸길이는 약 2미터까지 자란다.

6) 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8.

(鰻)'자가 처음부터 장어(長魚)를 지칭한 것은 아니었다. 『설문해자(說文解字)』를 살펴보면, '鰻, 魚也.'라고 하여 '만(鰻)'자는 '일반적인 물고기'를 지칭하고 있다. 그리고 『광운(廣韻)』에서 '鰻: 鰻鯠, 魚也.'라고 하여 '뱀장어라고 하는 물고기이다.'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래(鰻鯠)'는 『이아·석어(爾雅·釋魚)』에서 '이래(鱺鯠)'라고 풀이하고 있다. 또 '이래(鱺鯠)'는 『비창(埤蒼)』에서 '鱺鯠, 魾.'라고 하여 '방어[魾]'로 풀이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 '만래(鰻鯠)=뱀장어=이래(鱺鯠)=비(魾: 방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방어와 뱀장어를 같은 어류로 볼 수 있을까?[7]

장어(長魚)를 지칭하는 또 다른 한자 '리(鱺)'자를 살펴보자. '리(鱺)'자는 '어(魚)'가 의미부고 '려(麗)'가 소리부인 형성자이다. '려(麗)'자는 다시 '록(鹿)'이 의미부이고 '려(丽)'가 소리부로 '쌍을 이루어 가는 사슴'이라는 뜻이다. 이 의미에서 '짝'의 뜻이 나왔고, '아름다운 뿔을 가진 사슴'이라는 뜻에서 '아름답다'의 의미가 나왔다. 이후 사슴의 뿔을 부각시켜 사슴뿔의 화려한 모습을 그려냈고, 이로부터 '곱다', '멋지다' 등의 뜻이 나왔는데,[8] 아마도 몸이 온통 검어 빛을 내는 화려한 물고기라는 뜻을 담아 뱀장어 '리(鱺)'자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리(鱺)'자 역시 '만(鰻)'자와 마찬가지로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鱺, 魚也.'라고 하여 '일반적인 물고기'를 지칭하고 있다. 그리고 『이아·석어(爾雅·釋魚)』에서 '리(鱺)'자는 '靑州呼小鱺爲鮵.'라고 하여 '청주(靑州)에서 소리(小鱺)는 작은 가물치(鮵)라고 불렀다.'라고 풀이되어 있다. 당(唐)나라 때 펴낸 『옥편(玉篇)』에서는 '魚似蛇, 無鱗甲, 其氣辟蠹魚也.'라고 하여 '형태가 뱀과 비슷하고, 비늘이 없으며 좀을 피하게 해주는 물고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시진(李時珍)의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는 '鰻: 鰻鱺似鱓而腹大.'라고 하여 '만래(鰻鱺)'는 모양이 '선(鱓, 드렁허릿과의 민물고기)'과 같고 배가 큰 물고기이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만(鰻)'과 '리(鱺)'자는 적어도 한(漢)나라 이전부터 '물고기'를 지칭했던 한자이긴 하나 '장어(長魚)'만을 지칭했던 한자는 아닌 것 같다.

이러한 '만(鰻)'과 '리(鱺)'자는 우리나라 조선 시대 한자 학습서인 『훈몽자회(訓蒙字會)』(1527)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 '만(鰻)'자는 '鰻: 빈얌당어【만】魚名.'으로 '물고기'로 풀이되어 있고, '鱺(리)'자는 '鱺: 빈얌댱어【리】俗呼黃鱔. 又曰鰻鱺魚.'로 한문 주석에 '황선(黃鱔)', '만리어(鰻鱺魚)'라는 장어(長魚)의 다른 명칭도 함께 볼 수 있다. 이에 『훈몽자회(訓蒙字會)』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와 근대 시기에 출간된 자서류에서 '장어(長魚)'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7) 실제로 중국의 고문헌에서는 '이래(鱺鯠)'가 어떤 물고기를 가리키는지 자세한 설명은 없다. 때문에 '만래(鰻鯠)'를 '방어[魾]' 혹은 '이래(鱺鯠)'하고 볼 수는 없다.

8) 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8.

<표1> 조선 시대 및 근대 시기 자서류 속 장어(長魚)를 지칭하는 한자

서명	표제자	한문주석
『훈몽자회』 (1527)	鰻	빅얌당어【만】。魚名。
	鱺	빅얌댱어【리】。俗呼黃鱔。又曰鰻鱺魚。
『재물보』 (1807)	鰻鱺	狀如蛇, 背有肉鬣連尾, 無鱗, 有舌長敷尺. 비암쟝어. 白鱔, 蛇鱔. 風鰻, 鰻魚軋者.
『물명고』 (1824)	鰻鱺	狀如蛇, 背有肉鬣連尾, 無鱗, 빅암쟝어. 白鱔, 蛇鱔仝. 風鰻, 乾者. 海鰻, 海中絶大者.
『자류주석』 (1856)	鰻	빅얌쟝어【만】。鰻鱺, 似鱓而腹大。又曰 : 鰍魚。
	鱺	빅얌쟝어【리】。鰼仝。鰻鱺, 似蛇, 無鱗甲。又曰 : 鱧仝, 小鮦(가물치)。
『국한문신옥편』 (1908)	鱓	빅암쟝어【션】。魚, 似蛇, 黃質黑文, 蛇鱓。(銑)。【타】。黿鱓, 皮可冒鼓。(歌)。鼉(악어)同。
	鱔	鱓同。
	鱺	빅암쟝어【리】。似蛇, 無鱗甲, 氣辟蠹魚。(支)。鱧通。
『자전석요』 (1909)	鯣	【역】鱺也。배암장어【역】。(陌) 。
	鰻	【만】鱺也。배암장어【만】。(寒) 。
	鱺	【리】似蛇, 無鱗。鰻鱺。배암장어【리】。(支) 。
『한선문신옥편』 (1913)	鯣	빅암쟝어【역】。鱺也。(陌)。
	鰻	빅암장어【만】。鱺也, 無鱗甲, 色靑, 腹白, 有雄無雌, 以影漫鱧而生子, 故鰻。(寒)。
	鰼	빅암장어【리】。鰻也。(支)。
	鱺	빅암장어【리】。似蛇, 無鱗甲, 氣辟蠹魚。(支)。鱧通。
『신자전』 (1915)	鰻	【만】鰻鱺。뱀장어。無鱗, 色靑, 腹白, 有雄雌, 以影漫鰻生子, 故曰鰻。(寒)。
	鱺	【리】似蛇, 無鱗甲, 其氣辟蠹魚。뱀장어。(支)。鱧同。

위의 <표1>에 의하면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부터 『신자전(新字典)』까지 '만(鰻)'과 '리(鱺)'자는 [빅얌당어], [빅얌쟝어], [배암장어], [빅암장어], [뱀장어] 등의 한글 표기로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모두 현재의 '뱀장어'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만(鰻)'과 '리(鱺)'자는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 볼 수 있듯이 처음에는 각각 사용되다가 점차 두 한자가 합쳐져 '만리(鰻鱺)', '만리어(鰻鱺魚)'등으로 불려진 것 같다.

게다가 1610년에 완성된 의학서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도 '장어(長魚)' 대신 '만리어(鰻鱺魚)'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9], 1819년 정약용이 쓴 『아언각비(雅言覺

非)』에서도 '만리어(鰻鱺魚)는 장어(長魚)다. 생긴 것은 뱀과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10], 최소 19세기 전까지는 장어(長魚)를 '만리어(鰻鱺魚)'로 불렀던 것 같다.

3. '장어(長魚)'가 상위어로 된 원인

그렇다면 언제부터 '장어(長魚)'라는 이름이 모든 뱀장어목에 속하는 장어(長魚)를 통칭하는 상위어의 개념으로 사용된 것일까?

먼저, 우리나라 장어(長魚)의 종류와 다양한 이명(異名)을 통해 장어(長魚)의 이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장어(長魚)의 이명(異名)

종류		이명(異名)		내용	출처
		한국어	한자어		
장어	민물 장어	뱀장어	뱀-長魚	몸이 뱀처럼 긴 물고기의 형상에서 붙여진 이름.	『표준국어 대사전』
		만리어	鰻鱺魚	바다와강을 왔다갔다 할만큼 먼 길을 다니는 것을 보고 붙여진 이름.	민간설
		백선	白鱔	모양이 선(鱔, 드렁허릿과의 민물고기)과 같지만 배의 색깔이 흰색이여서 붙여진 이름.	『난호어목지』
		사어	蛇魚	살모사와 비슷한 까닭에 붙여짐 이름.	『난호어목지』
		금사리	金絲鱺	등에 누런 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	『난호어목지』
		만례	鰻鱧	가물치에게 그림자를 비추면 그 새끼가 가물치 지느러미에 붙어서 생겨난다고 하여 '례(鱧, 가물치)'자를 붙여서 명명된 이름.	『난호어목지』
	바닷 장어	해만리	海鰻鱺	바다에 서식하는 장어를 지칭.	『난호어목지』
		장어	長魚	'해만리(海鰻鱺)'의 속명으로 몸이 긴 물고기를 지칭.	『난호어목지』
		자만리	慈鰻鱺	몸의 색깔이 검은색인 까닭에 붙여진	『난호어목지』

9) 아마도 뱀장어가 바다와 강을 왔다갔다 할 만큼 먼 길을 다니는 것을 보고 옛날엔 장어를 '만리(鰻鱺)' 또는 '만리어(鰻鱺魚)'라고 불렀던 것 같다.

10) 鰻鱺謂之長魚, 形類蛇, 若此之類, 不可勝數.

				이름.	
		구어	狗魚	입이 돼지 입처럼 길고, 이빨은 개 이빨처럼 듬성듬성하게 나 있는 형상과 뼈가 견고하여 능히 사람을 물어 삼키는 습성에서 붙여진 이름.	『난호어목지』
		견아리	犬牙鱺		『자산어보』
		개장어	介長魚		『자산어보』
		갯장어		개장어의 속명.	
		붕장어	弸長魚	기다란 몸이 활시위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자산어보』
		해대리	海大鱺	'바다의 큰 장어'라는 뜻으로 장어의 크기에 의해 명명된 이름.	『자산어보』
		대광어	臺光魚	모래 바닥을 뚫고 들어가서 사는 생태적 습성으로 붙여진 이름.	『자산어보』
		해세리	海細鱺	몸통은 손가락처럼 가늘고 머리는 손가락 끝과 같다는 형상에서 붙여진 이름.	『자산어보』
		개소갱	-	-	『자산어보』

위의 <표2>에 의하면 장어(長魚)는 크게 민물장어와 바닷장어로 나눌 수 있다. 민물장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뱀장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달리 '만리어(鰻鱺魚)', '백선(白鱔)', '사어(蛇魚)', '금사리(金絲鱺)', '만례(鰻鱧)', '침만리(針鰻鱺)' 등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바닷장어는 '견아리(犬牙鱺)', '해대리(海大鱺)', '해세리(海細鱺)' 등의 종류가 있고, 이들은 달리 '해만리(海鰻鱺)', '자만리(慈鰻鱺)', '구어(狗魚)' 등이라고도 부르며 '개장어(介長魚)', '붕장어(弸長魚)', '대광어(臺光魚)' 등의 속명(俗名)도 존재한다. 이 외에도 엄격히 장어(長魚)는 아니지만 장어류에 속하는 '먹장어' 등이 있다.

이처럼 장어(長魚) 이름과 관련된 물고기 관련 문헌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재 모든 뱀장어목에 속하는 장어를 총칭하는 '장어(長魚)'는 원래 '해만리(海鰻鱺)'의 속명(俗名)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바닷장어'를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뱀장어는 민물장어로 원래 이름은 '만리어(鰻鱺魚)'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장어(長魚)를 지칭하는 '선(鱔)', '선(鱓)', '역(鯣)', '리(鱺)' 등의 한자어도 존재하는데 이 한자들이 실제 장어(長魚)를 의미하는 단어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연유로 장어(長魚)의 이명(異名)에 사용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장어(長魚)의 이름에 대해 위의 조선 시대와 근대 시기 자서류 및 장어(長魚) 이름과 관련된 문헌 내용을 중심으로 장어(長魚)의 다양한 명칭을 특징별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장어(長魚) 명칭의 유형

명칭의 유형		장어의 명칭	
		한자어	한국어+한자어
외형적 특징에 기인한 명명	색깔	-황선(黃鱔), 白鱓(백선), 慈鰻鱺(자만리) 등	-뱀장어(뱀+장어)
	형상	-장어(長魚), 사선(蛇鱓), 소동(小鮦), 蛇魚(사어), 金絲鱺(금사리), 狗魚(구어), 犬牙鱺(개아리) 등	
	크기	-붕장어(弸長魚), 海細鱺(해세리), 해대리(海大鱺), 대광어(臺光魚) 등	
서식지에 기인한 명명		-해만리(海鰻鱺), 개장어(介長魚) 등	-민물장어(민물+장어), 바다장어(바다+장어), 갯장어(갯+장어)
생태적 습성에 기인한 명명		-만례(鰻鱧) 등	
한자의 특징에 기인한 명명 (인신의, 이체자 등)		-만(鰻), 리(鱺), 만리(鰻鱺), 만리어(鰻鱺魚) -리(鱺)-이(鯣)-리(鰼)-래(鰊)-예(鱧) -선(鱓)-선(鱔) 등	

장어(長魚)의 명칭은 크게 '외형적 특징에 기인한 명명', '서식지에 기인한 명명', '한자의 특징에 기인한 명명', '생태적 습성에 기인한 명명' 등 네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명칭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형적(색상) 특징에 기인한 명칭이다. 외형적 색상에 의해 명명된 장어(長魚)의 명칭에는 '황선(黃鱔)', '백선(白鱓)', '慈鰻鱺(자만리)' 등이 있다. '황선(黃鱔)'과 '백선(白鱓)'은 배의 색깔이 각각 황색과 흰색이여서 붙여진 이름이고, '慈鰻鱺(자만리)'는 '자(慈)'자가 지닌 색상(검은색)의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慈)'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慈)'자는 본래 '심(心)'이 의미부고 '자(玆)'가 소리부인 형성자로 마음을 한없이 불려 남에게 베푸는 자애로운 '사랑'을 말한다. 이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사랑을 지칭하였고, 어머니의 비유로 쓰인 글자이다. 이 글자는 '滋(붙을 자)'로도 쓰이는데, '자(滋)'는 '수(水)'가 의미부고 '자(玆)'가 소리부인 형성자로 갑골문에서는 물에 실타래를 담가 놓은 모습으로 염색한 실타래를 물에 씻는 모습으로 추정된다. 염색한 실타래는 냇물에 담그면 색깔이 주위로 퍼져나가 물이 검고 혼탁해지기에 '자(滋)'에 '불어나다'는 뜻이, 또 '자(玆)'에는 '검다'는 뜻이 생겼다. 따라서 '玄(검을 현)'과 '현(玄)'이 둘 모인 '자(玆)'나, '자('玆)'에 '수(水)'가 더해진 '자(滋)'는 모두 같은 어원을 가지는 글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11] 이에 '자만리(慈鰻

鱺)'는 장어(長魚)의 몸 색깔이 검은색인 까닭에 장어(長魚)를 지칭하는 한자어 '만리(鰻鱺)'에 흑색을 뜻하는 '자(慈)'가 붙여서 만들어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둘째, 외형적(형상) 특징에 기인한 명칭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장어(長魚)의 이름은 '사선(蛇鱔)', '사어(蛇魚)', '금사리(金絲鱺)', '구어(狗魚)', '견아리(犬牙鱺)' 등이다. 먼저 '사선(蛇鱔)'과 '사어(蛇魚)'는 뱀(살모사)과 비슷하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고, '금사리(金絲鱺)'는 등에 누런 줄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구어(狗魚)'와 '견아리(犬牙鱺)'는 입이 돼지 입처럼 길고, 이빨은 개 이빨처럼 듬성듬성하게 나 있는 형상에서 '개'를 뜻하는 한자 '구(狗)'와 '견(犬)'자를 붙여서 만들어진 이름이다.

셋째, 외형적(크기) 특징에 기인한 명칭이다. 예를 들어 '붕장어(弸長魚)', '海細鱺(해세리)', '해대리(海大鱺)' 등이 대표적인 장어(長魚)의 이름이다. 우선 '붕장어(弸長魚)'는 장어(長魚)의 기다란 몸이 활시위처럼 생겼다고 해서 '弸(화살 소리 붕)'을 붙여서 만든 이름이다. 그리고 '海細鱺(해세리)'는 몸통이 손가락처럼 가늘고 머리가 손가락 끝과 같이 가늘고 작은 형상을 '세(細)'를 통해 '가늘다, 작다'는 의미를 표현하여 명명하였다. 또 '해대리(海大鱺)'는 '바다의 큰 장어'라는 뜻으로 붕장어의 크기에 의해 명명된 이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서식지에 기인한 명칭이다. 서식지에 기인한 명칭에는 한자어로 '해만리(海鰻鱺)'와 '개장어(介長魚)'가 있고, 한국어와 한자어로 구성된 이름에는 '민물장어'와 '바닷장어', '갯장어'가 있다. 이 네 개의 명칭에는 모두 장어(長魚)의 이름 앞에 '해(海)', '민물', '바닷', '갯' 등 장어(長魚)의 서식지를 붙여서 만든 이름이다.

다섯째, 생태적 습성에 기인한 명칭이다. 대표적인 예로 '만례(鰻鱧)'라는 장어(長魚)의 이름이 있다. '만례(鰻鱧)'는 가물치에게 그림자를 비추면 그 새끼가 가물치 지느러미에 붙어서 생겨난다고 하여 '례(鱧, 가물치)'자를 붙여서 명명된 이름이다.

여섯째, 한자의 특징에 기인한 명칭이다. 한자의 특징에 기인한 명칭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만(鰻)'자와 같이 한자의 의미 확대와 추상화에 의해 만들어진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鱺-鯣-鰶-鯠-鱧'의 '麗-易-黎-來-豊' 또는 '鱔-鱔'의 '單-善'과 같이 글자간의 이체자 관계로 인해 장어(長魚)를 명명하게 된 이름이다.[12] 먼저 '선(鱔)'과 '선(鱔)'자를 살펴보면 이 두 글자는 모두 '드렁허리'를 뜻하는 한자어이다. 드렁허리는 뱀장어와 달리 일생동안 논, 호수, 하천 등지에 사는 것으로 실제 뱀장어와는 다른 종류의 민물고기이다.[13] 그리고 '선(鱔)'과 '선(鱔)'자는 『훈몽

11) 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8.

12) 전자의 경우는 이미 제2장에서 살펴보았고, 여기에서는 후자에 해당하는 글자간의 이체자 관계로 인해 장어를 명명하게 된 명칭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13)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 '선어(鱔魚)'를 '선어(膳魚)'라고도 하는데, 반찬을 만들 수 있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자서(字書)에서 '어(魚)'변에 '선(善)'을 붙여 글자

자회(訓蒙字會)』에서 '드렁허리 선(鱔)'이라 하고 '선(鱓)'으로 쓰기도 한다고 하였고,[14]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를 보면 기내(畿內 : 서울을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에서는 '웅어(熊魚)'라 하고, 호서·호남에서는 '농요어(壟腰魚)'라 한다고 하였다.[15] 그리고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에서는 이를 "황색 바탕에 검은 무늬가 있고 배는 전체가 황색이므로 '황선(黃鱓)'의 이름이 붙었다. 뱀장어와 비슷하며, 길고 뱀을 닮았으나 비늘이 없다. 큰 것은 길이가 2~3척이다. 겨울에는 숨어 있다가 여름에 나오는 것이 뱀장어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16] 이렇듯 이 두 글자는 실제 '드렁허리'를 지칭하는 한자어로 장어(長魚)를 지칭하는 한자가 아니다. 단지 드렁허리의 형상과 특징이 장어(長魚)와 유사하여 장어(長魚)를 지칭할 때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17]

다음은 '역(鯣)'과 '리(鱺)'자이다. '역(鯣)'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뱀장어'를 지칭하는 한자이긴 하나 주로 '오징어'를 뜻하는 한자어이고[18], '리(鱺)'자는 실제 '방어'를 뜻하는 한자어이다. 이 두 글자 모두 『자전석요(字典釋要)』와 『한선문신옥편(漢鮮文新玉篇)』에서 한글 표기로 [배암장어], [빅암장어] 등을 나타내고, 한문 주석에서 '역(鯣)'자는 '鱺也.'로, '리(鱺)'자는 '鰻也.'로 풀이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장어(長魚)에 대한 형상이나 특징 등의 설명이 없다. 특히 '리(鱺)'자는 다른 어류의 명칭으로 장어(長魚)와 방어의 연관성은 찾기가 어렵다. 아마도 이 두 글자는 장어(長魚)를 대표하는 한자 '리(鱺)'자의 이체자로 당시 혼용되어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듯 우리에게 익숙한 '장어(長魚)'는 19세기 전까지 주로 '만리어(鰻鱺魚)'로 불렀고, 조선 후기쯤 '장어(長魚)'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어(長魚)'라는 이름이 등장한 후에 처음에는 '만리어(鰻鱺魚)'를 대체하는 단어로 사용되다가 점차 '만리어(鰻鱺魚)'를 뜻하는 '뱀장어(민물장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바닷장어를 지칭하는 '장어(長魚)'의 의미까지 사용되었다. 사실 일반인들에게 장어(長魚)는 그저 형상이 뱀과 비슷하고 몸이 긴 물고기일 뿐 장어(長魚)의 서식지가 민물인지 바다인

를 만든 것은 독성이 없는 물고기로서 식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고기 가운데 훌륭한 것이라는 의미다. 선어(鱔魚)는 뱀장어와 비슷하나 가늘고 길며 늪지의 언덕 굴속에 산다.

14) 鱔: 드렁허•리 션 亦作鱓.

15) 네이버 백과사전

16) 鱓 [드렁허리] 黃質黑章, 而其腹全黃, 故有黃鱓. 黃魚旦之名. 似鰻而長, 似蛇而無鱗. 大者長二三尺, 冬蟄夏出, 與鰻鱺同.

17) 드렁허리는 드렁허리목 드렁허리과의 단일종이다. 드렁허리는 꼬리지느러미 외에는 지느러미가 없어 뱀으로 오인하기 쉽다. 드렁허리는 논바닥에 구멍을 파고 숨어 지내는 일이 많고, 논두렁을 뚫고 다니기 때문에 논물이 다 빠져 나가고 논둑이 무너지기도 하기 때문에 천수답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미움이 대상이기도 하다. 드렁허리란 이름도 '논두렁을 헌다.'는 데서 나왔다는 옛말이 있다.

18) 중국에서 '역(鯣)'자는 '물고기'를 지칭하는 뜻이고, 일본에서는 '오징어'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지는 중요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채 민물장어와 바닷장어를 구분하지 않고 '장어(長魚)'라고 불렀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 장어(長魚)뿐만 아니라 물고기의 형상이 뱀과 유사하거나 몸이 긴 물고기들을 대부분 '장어(長魚)'라 불렀고, 그러자 장어(長魚)는 넓은 의미로 오늘날의 뱀장어목에 속하는 모든 종(種)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사용된 듯하다.

4. '장어(長魚)'의 다양한 이름이 지닌 문화적 함의

장어(長魚)는 바다에서 태어나고 민물에서 살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 산란하는 회류성(回遊性) 어류로 이러한 특징을 지닌 장어(長魚)는 뱀장어가 유일하다. 그래서인지 우리에게 익숙한 장어(長魚) 또한 서식지가 민물인 뱀장어이다. 그러나 뱀장어를 제외한 나머지 장어(長魚)는 모두 바다에서만 서식하는 바닷장어로 이 또한 식용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어류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민물장어인 뱀장어뿐만 아니라 바닷장어를 지칭하는 붕장어, 갯장어, 개소갱 등 장어(長魚)의 다양한 명칭을 통해 장어(長魚) 이름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함의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유일한 민물장어인 '뱀장어'를 살펴보자. 뱀장어의 이름은 이미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뱀+장어(長魚)'의 결합으로 몸이 '뱀과 비슷한 긴 물고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뱀장어라고 하면 '풍천장어(風川長魚)'를 최고로 여기는데, 풍천장어(風川長魚)는 뱀장어가 바닷물을 따라 강으로 들어올 때면 일반적으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강으로 들어오는 장어(長魚)라는 의미에서 '바람 풍(風)'에 '내 천(川)'자가 붙은 것이다. 보통 바다에 물이 들어올 때는 육지로 바람을 몰고 오게 되는데 이때 잡히는 장어(長魚)를 '풍천장어(風川長魚)'라고 일컬었던 것이다. 뱀장어는 보통 '민물장어', '장어', '짱어', '참장어', '궁장어'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는 옛말로 '배얌댱어'라 불리었다고 하며,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와 『전어지(佃漁志)』에는 배가 하얀 까닭에 '백선(白鱔)', 뱀과 비슷하여 '뱀고기'라고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뱀장어를 '河鰻[hémán]'이라고 하는데, '하(河)'자를 사용하여 뱀장어의 서식지가 강, 천, 민물임을 나타내었다. 반면 바닷장어는 중국어로 '海鰻[hǎimán]'이라고 한다. 그런데 일본에서 '海鰻[hémán]'은 'アナゴ(穴子)'인 '붕장어'를 가리키는데, 아마도 일본 사람들에겐 붕장어가 '바다의 큰 장어'로 바닷장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왜냐면 일본에서 장어(長魚)라고 하면 대부분 뱀장어와 붕장어를 말하는데, 장어(長魚) 이름 앞에 'ニホンウナ

ギ(日本鰻)'처럼 국명을 붙일 정도로 두 장어(長魚)는 민물장어와 바닷장어를 각각 대표할 만큼 유명하다.

그렇다면 바닷장어에 속하는 '붕장어'를 한 번 살펴보자. 붕장어는 『자산어보(玆山魚譜)』에서 표제어로는 '해대리(海大鱺)', 속명은 '붕장어(弸長魚)'라고 표기되어 있고, 눈이 크고 배 안은 흑색이며 맛은 '해만리(海鰻鱺)'보다 좋다고 설명하고 있다.[19] 붕장어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는데,[20] 한국에서는 '바다의 큰 장어'라는 의미에서 '해대리(海大鱺)'라고 부르고, 붕장어의 형상에 의해 기다란 몸이 활시위처럼 생겼다고 해서 '붕장어(弸長魚)'라고 한다. 중국에서도 붕장어의 형상에 의해 '星鰻[xīngmán]'이라고 하는데, '星鰻[xīngmán]'은 항문에서 머리 쪽으로 뚜렷이 나 있는 38~43개의 옆줄 구멍이 별 모양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반면 일본에서는 붕장어를 'アナゴ(穴子)'라고 한다. 'アナゴ(穴子)'는 모래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붕장어의 습성 때문에 '穴(구멍 혈)'자가 붙은 데서 유래한 것이다. 이는 붕장어의 학명을 살펴보면, 'Congermyriaster'의 'Conger'가 그리스어로 '구멍을 뚫는 고기'란 뜻을 가지는 'Gongros'에서 유래한 것에서도 구멍을 뚫고 사는 붕장어의 생태적 습성이 잘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바닷장어인 '갯장어'이다. 갯장어는 『자산어보(玆山魚譜)』에서 표제어로는 '견아리(犬牙鱺)', 속명(俗名)은 '개장어(介長魚)'라고 표기되어 있고, 입이 돼지 입처럼 길고, 이빨은 개 이빨처럼 듬성듬성하게 나 있으며 가시와 뼈가 단단해 사람을 삼킬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21] 갯장어는 전체적으로는 붕장어와 많이 닮았지만 붕장어에 비해 주둥이가 길고 뾰족한 편이며 등지느러미가 가슴지느러미보다 앞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성체의 크기도 붕장어보다 큰 편이라 200cm에 이르는데 성질 또한 사나워 뭍에 올려놓으면 사람에게 달려들기도 한다. 갯장어의 이러한 특성 때문인지 『자산어보(玆山魚譜)』에서 갯장어는 개의 이빨을 가진 뱀장어로 묘사해두었다. 그래서 갯장어의 어원 또한 많은 장어(長魚) 중에 개처럼 이빨이 날카롭고 잘 무는 습성으로 인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그러나 갯장어에서 '개'의 어원이 정말로 '개(동물)'와 관련성이 있는지 아니면 '갯지렁이', '갯마을', '갯바위'처럼 '갯'이 바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22] 우선 갯장어의 특징에서 이름의 어원을 생각해보면, (1) 뱀장어(민물장어)처럼 몸이 길고, (2) 뱀장어는 민물에 살지만 갯장

---

19) 海大鱺 [俗名弸長魚] 目大, 腹中黑色,. 味尤佳.

20) 한국에서는 충남과 황해도에서 '붕어지', 함경남도에서 '벵찬', 진도에서 '참장어', 전남에서 '짱애' 혹은 '꾀장어' 등의 다양한 호칭으로 불린다.

21) 犬牙鱺 [俗名介長魚] 口長如豕, 齒疎如犬, ?骨益堅, 能?人

22) '개소리', '개구멍', '개나리' 등 '개'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는 단어 중에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것이 없으며 어떤 단어도 '갯소리', '갯구멍', '갯나리' 이런식으로 사이시옷이 붙여지지 않는다.

어는 바다에 살고, (3) 뱀장어에 비해 갯장어는 이빨이 길고 날카로우며 잘 문다. 여기서 (2)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면 '갯(바다)'+'장어'이고, (3)에 초점을 맞추면 '개(동물)'+'장어'이다.[23] 이와 같이 이름의 어원에 대한 문제점은 일본식 갯장어 이름에도 나타난다. 갯장어는 일본어로 'はも(鱧)'이다. 'はも(鱧)'의 어원은 일반적으로 갯장어들이 아무것이나 잘 물어대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 '물다'라는 뜻의 일본어 'はむ'에서 그 이름이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はむ'는 '食む'라고 쓰기도 하는데, 한자에서 보듯이 '물다'의 의미가 아니라 '먹다', '마시다', '봉급 따위를 받다' 등의 뜻에 가깝다. 특히 이 단어가 생물에 사용할 경우 물고기에서는 숨을 쉬려고 물 밖으로 입을 뻐끔거리는 것을 'はむ'라고 하지, 갯장어처럼 맹렬히 무는 것이 'はむ'가 아닌 것이다.[24] 심지어 일본에서도 'はむ'의 다른 뜻으로 'ハモ(갯장어)'의 고어(古語)라고 되어 있다.[25] 이는 '물다'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はも(鱧)'의 어원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더욱이 일본에서는 이러한 갯장어를 한자로 '례(鱧)'라고 쓰는데, 실상 '례(鱧)'자는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가물치'를 가리키는 한자이다. 이에 혹시나 한·중·일 교류나 필담으로 갯장어를 주문하는 경우가 있다면 조심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장어(長魚)의 이름이다.[26]

또 다른 바닷장어인 '개소갱'을 살펴보자. 개소갱은 『자산어보(玆山魚譜)』에서 표제어는 '해세리(海細鱺)', 속명(俗名)은 '대광어(臺光魚)'로 표기되어 있다. 개소갱은 몸통이 손가락처럼 가늘고 머리는 손가락 끝과 같으며 색은 홍흑(紅黑)이고 가죽은 매끄러우며 갯벌에 숨어 산다고 설명하고 있다.[27] 개소갱은 생김새 때문에 사람들이

---

23) 아마도 갯장어의 '개'가 '개(동물)'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많은 것은 『자산어보(玆山魚譜)』에서 갯장어를 '견아리(犬牙鱺)'라고 썼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장어(長魚)는 원래 한자어로 '만리(鰻鱺)'라고 부르고, 보통 뱀장어를 가리키는 한자는 '만(鰻)'이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견아리(犬牙鱺)', '해대리(海大鱺)', '해세리(海細鱺)' 같은 이름을 쓰는 용례가 없는 것을 보면 『자산어보(玆山魚譜)』에서 정약전(丁若銓)이 갯장어의 외형적 특징에 맞춰서 한문 이름을 새로 지은 단어가 분명하다. 즉, '개이빨장어'라는 것은 정약전이 붙은 것이지 민간에서 원래 부르던 이름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속명(俗名)에는 '개장어(介長魚)'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자를 사용해서 발음만 나타내는 것이므로 사이시옷은 표현할 수가 없다. 반면 갯장어에서 '갯'은 우리말에서 갯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갯가'로 나갔다며 '바닷가로 나갔다'는 뜻이지 '갯벌로 나갔다'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흔히 장어라고 부르는 뱀장어가 주로 발견되는 곳이 민물이라면 바다에서 발견되는 장어는 민간에서 '갯장어'라고 불릴 여지가 충분히 있다. 언어적인 해석으로도 갯장어의 '개'가 '동물'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사이시옷이 붙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

24) 海豚…塩ふき立てて食はみて来たる(돌고래…물을 뿜어 올리며 수면 위에 올라와서 숨을 쉬었다)

25) ハモの古名。『新撰字鏡』

26) 사실 우리에게 '갯장어'라는 이름보다 'ハモ'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고 잘 알려진 것은 갯장어를 즐겨 먹는 일본인들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갯장어를 자기네 나라로 전량 빼돌리기 위해 '수산통제어종'으로 지정한 탓이 크다.

27) 海細鱺 [俗名臺光魚] 長一尺許. 體細如指, 頭如指耑. 色紅黑, 皮滑. 伏於鹵泥中. 腊之則味佳.

많이 찾지도 않을 뿐더라 다른 어종에 비해 잡기도 어렵지만 잡힌다고 해도 버리기 일쑤라 생물로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우리에겐 다른 장어(長魚)에 비해 낯선 이름이다.[28]

이 외에도 갯장어, 붕장어와 함께 바다에서만 사는 '먹장어'가 있다. '먹장어'의 어원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장어(長魚)이기 때문에 '눈이 먹(멀)었다'에서 '먹-'이 된 것으로 보이며 한자어로 '묵(墨)'에 '-장어(長魚)'가 합쳐져 '묵장어'가 '먹장어'로 된 것으로 보인다. 먹장어는 부산 방언으로 '꼼장어'로 더 널리 알려져 있는데, '꼼장어'는 꼼지락거려 부산에서 지어진 이름이고, 경남에서는 '푸장어'라고 부르고, 전남에서는 '묵장어'나 '현장어'라고도 부른다.[29] 중국과 대만에서는 먹장어를 '盲鰻[mángmán]'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먹장어의 외형적 특징을 나타내는 '눈멀 망(盲)'자와 장어(長魚)를 뜻하는 '만(鰻)'자를 붙여서 만든 이름이다. 먹장어를 일본어로는 'ぬたうなぎ'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직역하면 '진흙 장어' 정도이다.[30]

끝으로 특이한 명칭을 가진 장어(長魚)로 '무태장어'가 있다. 무태장어는 몸에 검은 점과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므로 이 특성을 살린 이름이다. 중국에서는 '花鰻鱺[huāmánlí]'라고 하는데, 이 이름 또한 무태장어의 외형적 특징에서 명명된 이름이라 할 수 있다. '花[huā]'자는 일반적으로 '꽃'을 의미하는데, 이후 꽃처럼 생긴 것을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되었고, 이로부터 '꽃 모양의 물건', '기생', 나아가 '무늬', '돈을 쓰다' 등의 의미도 나타났다. '花鰻鱺[huāmánlí]'에서 '花[huā]'는 '무늬'의 의미로써 무태장어가 지닌 외형적 특징에 기인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31]

이러한 장어(長魚)는 고대, 세계의 각지에서 신앙의 대상으로도 여겼다. 중국의 경우 영파(寧波)의 아육왕사(阿育王寺)를 비롯해 강소(江蘇), 절강(浙江) 지역을 중심으로 각지에 '만정(鰻井)', '영만정(靈鰻井)'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전설에 따르면 그 우물에 신성한 뱀장어가 살아서 그 모습을 나타내면 수해(水害)나 한발(旱魃)이 일어난다든지, 가뭄에 기원하면 비를 내리게 한다고 믿었다. 당시 중국인들은 '만정(鰻井)'

---

28) 대강이 요리는 우리나라 순천과 벌교 사람들이 미꾸라지 대신 끓여 먹는 가정식 보양탕으로 알려져 있다.

29)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먹장어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다.

30) 과거에는 'めくらうなぎ(盲鰻)'라고 하여 먹장어의 일본 명칭이었는데, 시각장애인 차별 용어가 포함되어 2007년 1월에 'ホソヌタウナギ(細沼田鰻)'로 개명하여 사용하고 있다. 'ホソヌタウナギ(細沼田鰻)'의 'ホソ(細)'는 'ほそい(가늘다)'란 의미이고, 'ヌタ(饅)'는 원래 '미소(酢味噌)' 또는 그 무침을 뜻하며 외견이 '누타(沼田, 누마다, 수렁논/늪지)'를 연상시키는 것에 붙는 호칭이지만 여기서는 방어와 공격을 위해 복부의 점액선에서 대량으로 분비되는 하얀 점액을 가리킨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는 'ヌタウナギ(饅鰻, 沼田鰻)'는 먹장어강에 속하는 물고기의 총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31) '花[huā]'자는 '花斑(얼룩)', '花花点点(얼룩지다)' 등과 같이 '무늬' 등을 뜻하는 단어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또는 '영만정(靈鰻井)'에 나타나는 뱀장어의 형상에서 수신(水神)의 총수인 용이 연상되거나 뱀장어를 그 화신으로 여긴 것에서 유래된 것이다. 필리핀의 이프카오족 등에서도 조상숭배나 토템신앙과 관련되어 뱀장어가 신성시되었고, 일본 또한 소원을 빌 때 뱀장어가 교미하고 있는 그림을 봉납하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 반면 대만의 경우 고산족(高山族) 중에는 뱀장어를 전혀 먹지 않고, 어업 중에는 뱀장어라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금기가 있었다.

이처럼 장어(長魚)는 한·중·일 삼국의 언어 속에서 다양한 명칭과 그 이름이 가진 의미, 장어(長魚)의 생태적 습성과 특징, 장어(長魚)가 지닌 상징성, 그리고 한·중·일 삼국의 문화 교류 등의 흔적을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나오기

본 연구는 어류(魚類)의 한 종류인 장어(長魚)의 명칭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통시적 고찰을 통해 '만리(鰻鱺)'가 아닌 '장어(長魚)'로 명명된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표준어에서 장어(長魚)가 장어(長魚)의 종류를 통칭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나아가 장어(長魚)의 다양한 이명(異名)을 통해 나타나는 한·중·일 삼국의 언어문화교류 현상과 장어(長魚) 이름에 담긴 문화적 함의를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지금까지 다양한 문헌 자료를 통하여 한자어 '만리(鰻鱺)'로부터 지금의 '장어(長魚)'에 이르기까지 시기 순서대로 그 의미를 검토해 보았고, '장어(長魚)'로 명명된 이유를 추정해 보았으며, 표준어에서 '장어(長魚)'가 어떤 계기로 긴 물고기를 통칭하는 상위어로 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어(長魚) 이름과 관련된 물고기 관련 문헌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재 모든 뱀장어목에 속하는 장어(長魚)를 총칭하는 '장어(長魚)'는 원래 '해만리(海鰻鱺)'의 속명(俗名)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바닷장어'를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뱀장어는 민물장어로 원래 이름은 '만리어(鰻鱺魚)'이다.

둘째, 15~19세기 문헌 자료에 나타나는 장어(長魚)의 이름을 종합해보면 최소 조선 후기까지는 '장어(長魚)'를 '만리어(鰻鱺魚)'로 불렀다. '만리어(鰻鱺魚)'는 조선 후기 '장어(長魚)'라는 명칭이 등장하면서 점차 '만리어(鰻鱺魚)'를 대체하는 명칭으로 '장어(長魚)'를 사용하게 되었고, 19세기 이후부터 오늘날의 뱀장어목에 속하는 모든 종(種)을 통칭하는 말로 '장어(長魚)'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 단어는 원래 속명(俗名)으

로 바닷장어를 지칭하는 것이었다가 이후 뱀장어목에 속하는 모든 종(種) 또는 긴 물고기를 통틀어 지칭하게 된 것이다.

셋째, 표준어에서 '장어(長魚)'가 상위어로 된 계기는 물고기 형상의 유사성, 장어(長魚)의 다양한 이명(異名), 한자어로 이루어진 장어(長魚) 이름 속 한자의 '다의어, 동음어, 이체자' 현상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장어(長魚)의 다양한 이명(異名)을 통해 장어(長魚)의 생태적 습성과 특징 등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었고, 장어(長魚)의 이름에 담긴 한·중·일 언어적 해석 방식과 문자 표기상의 차이 등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장어(長魚)가 지닌 상징성과 문화적 함의뿐만 아니라 한자를 매개로 하는 한·중·일 삼국의 문화 교류 흔적도 살펴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최세진, 『훈몽자회』, 대제각, 1527.
정윤용, 『자류주석』, 건국대학교출판부, 1856.
정익로, 『국한문신옥편』, 야소교서원, 1908.
지석영, 『자전석요』, 회동서관, 1909.
현공렴, 『한선문신옥편』, 대창서관, 1913.
최남선, 『신자전』, 신문관, 1915.
정문기, 『어류박물지』, 일지사, 1974.
정문기, 『한국어도보』, 일지사, 1977.
서유구, 『난호어목지』, 경문사, 1977.
이충구, 『이아주소』, 소명출판, 2004.
김 려 저, 박준원 역, 『우해이어보』, 다운샘, 2004.
정약용, 『아언각비 이담속찬』, 현대실학사, 2005.
민족문화추진회, 『신증동국여지승람』, 한국학술정보, 2008.
조재삼, 강민구 역, 『교감 국역 송남잡지』, 소명출판사, 2008.
서유구, 이두순 역, 『평역 난호어명고』, 블루앤노트, 2015.
정약전·이 청 저, 정명현 역, 『자산어보』, 서해문집, 2016.
이두순, 『우해이어보와 다른 어보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이시진(李時珍), 민족의학연구원 역, 『본초강목(本草綱目)』, 문사철, 2018.
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8.
유 희, 『물명고』, 소명출판, 2019.

이규경, 전병철·이규필 역,『오주연문장전산고』만물편/충어류, 국립해양박물관, 2019.
이만영,『재물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22..
곽현숙,『물고기 이름의 문화사』, 역락, 2022.

<논문>
김문기,「근세 동아시아의 魚譜와 어류지식의 형성」,『역사와 경계』, 99, 부산경남사학회, 2016.
金洪錫,「魚名의 命名法에 대한 語彙論的 考察」,『국문학논집』, 17, 2000.
여찬영,「우리말 물고기 명칭어 연구」,『한국전통문화연구소』, 제 9집, 1994.
박헌순,「이름의 종류」,『새국어생활』, 제1권 1호, 국립국어연구원, 1991.
곽현숙,「명태의 이명(異名) 고찰」,『중국학』 제77집, 2021.

<기타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두산백과사전 (http://www.cencyber.com)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일본어원유래사전 (https://gogen-yurai.jp)
일본 위키백과사전(https://ja.wikipedia.org/wiki)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長魚, 起源, 名稱, 異名, 海鰻鱺, 鰻鱺魚
	영문	Eel, Origin, Name, Nickname, Sea eel, Freshwater eel

Lexical History of Eel's Name

Kwak Hyun-Su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 in the meaning of eel from the Chinese character '鰻鱺' to the current '長魚' through synchronic consideration of the name of the eel, and to examine the reason why it was named '長魚' rather than '鰻鱺' and how it was used as a generic name for the type of 長魚 in the current standard language. Furthermore, we tried to estimate the phenomenon of language and cultural implications of Korea, China, and Japan through various names of 長魚.

As a result, the Chinese character 'long-bodied fish' of 長魚 is literally a generic term for 'long-bodied fish', and at first, it was not only a generic term for 鰻鱺, but a 俗名 of '海鰻鱺' belonging to the subcategory of 長魚. In the 15th and 19th centuries, the word was called '鰻鱺魚' at least until the late Joseon Dynasty, and since then, all species (種) belonging to the order of 長魚 or fish with a long shape have been referred to as 'eels'.

It was found that the reason why 長魚 became the top word in the standard language was also related to the similarity of shapes, various nickname of eels, and the phenomenon of 'multi-lingual, homonym, and diverticulum' of Chinese characters used in eel names. In addition, through the names made up of various nickname and Chinese characters of the 長魚, we were able to examine the ecological habi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el, as well as the linguistic interpretation methods, differences in written notation, and the symbolism and cultural implications of the 長魚.

저 자	곽현숙 / 郭鉉淑 / Kwak Hyun-Suk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3.11.10.	심 사 일	2023.12.11.	게재확정일	2023.12.14.